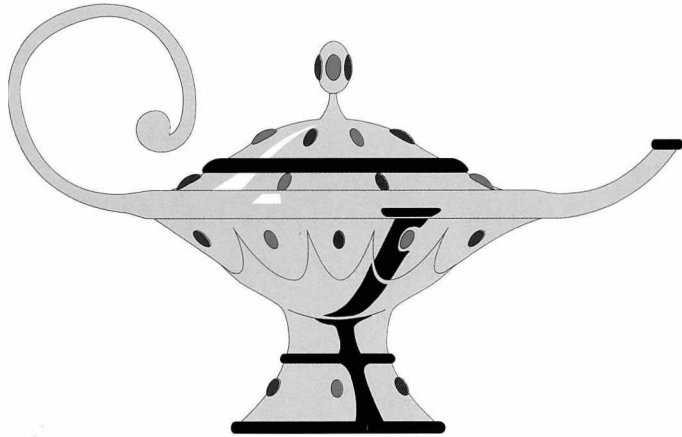


서울폰트

폰트전문회사로 거듭나다

폰트전문회사로 거듭나다

폰트전문회사로 거듭나다



지난 '02년 11월 1일 서울시스템에서 독립, 폰트전문회사로 새롭게 출발한 서울폰트(seoulfont.com 대표 최주선)가 일부 염려에도 불구하고 서체전문회사로서 자리를 굳건히 해가고 있다. 신문제작 시장의 독점적 위치가 경쟁사들의 시장진입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보이지만 심혈을 기울여 온 다국어 한자 제작 능력이 해외에서 인정받는 등 분사 이후 폰트 전문회사로서의 기반이 마련되고 있는 것이다.

폰트전문회사로서 새롭게 출발하는 서울폰트를 찾아 분사과정과 향후 회사의 전망에 대해 들어봤다.

전문폰트회사 오히려 득, 일본과 중국 시장 적극 공략할 것

지금껏 시장 장악력과 폰트 개발 능력에 비해 서울시스템 폰트 개발팀의 능력은 저평가받아 왔던 게 사실이다.

서울시스템이 국내 폰트개발회사 중에서 가장 많은 서체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했던 이유는 신문시장 제작 시스템에서의 독점에 가까운 점유율에 비해 어려움을 겪었던 출판시장에서의 고전과 모회사의 법정관리 등으로 인한 평가 절하 등 서울시스템의 폰트 자체 문제라기보다는 외적인 요인들이 더 크게 작용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폰트전문회사로 독립한 서울폰트에 대해 일부에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서울시스템의 신문

제작 시스템이 없이 폰트전문회사로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우려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일부 우려에 대해 최주선 대표는 “서울폰트의 독립은 서울시스템에서 독립해도 살아 남을 수 있다는 계산이 섰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라며, “서울시스템으로부터 완전 독립이 목적이지만 출판 및 신문제작 시스템과는 지속적으로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폰트전문회사로 독립하면서 폰트개발에 대한 투자의 명목을 챙겼고, 보호막 역할을 하던 서울시스템의 출판 및 신문제작 시스템과의 관계를 지속시켰기 때문에 분리 독립으로 인해 잃은 게 없다는 분석이다.

서울폰트는 폰트전문회사로 독립한 올해 출판용 서체와 주문형 출판 시장과 OEM 시장을 겨냥한 온라인용 서체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미 상당수의 폰트가 제작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으며, 엄선작업을 통해 하반기쯤 신 서체를 선보일 예정이다.

박수연 디자인팀 과장은 “신문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로 인해 출판시장을 겨냥한 서체 출시가 게을렀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폰트전문회사로 독립한 만큼 출판 시장은 물론 디자이너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다양한 서체를 개발하게 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경쟁사들의 신문용 서체 시장에 진입한 것도 서울폰트 관계자들에게겐 하나의 자극제로 작용할 것 같다.



일본 법인과의 이비폰트, 야미폰트, 한자표준체, 세련체, 모노, 세리프, 만년필, 트비

2000년 들어 신문시장에 비주얼화 바람이 불면서 서체는 단순한 텍스트가 아닌 신문을 구성하는 중요한 디자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신문시장에서 시각 디자인 요소가 강화된 것인데 이로 인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중앙일보, 등 3대 메이저 신문이 지난해 경쟁사들의 서체를 선택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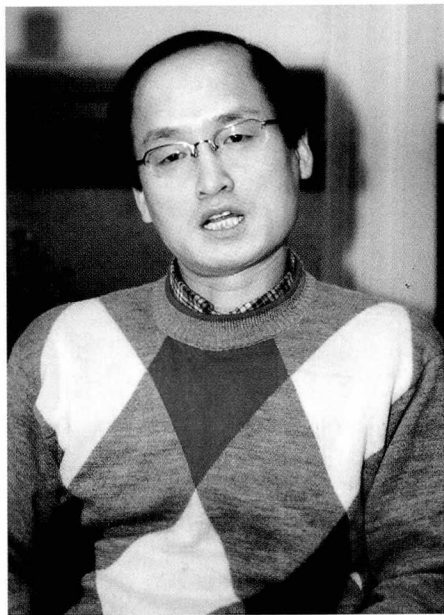
최주선 대표는 "일부 업체들의 신문용 서체 시장 진출로 경쟁자가 생겨난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는 신선한 자극제를 만난 기분이다"라고 말했다.

일부 신문에서 경쟁사의 서체를 선택했지만 매일경제, 한국경제, 대한매일 등 30여 개가 넘는 주요 신문사들이 서울시스템의 신문제작 시스템과 서울폰트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서울폰트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다국어 폰트의 해외시장 진출이다.

서울폰트는 서울시스템시절이던 92년부터 한자를 포함한 다국어 개발에 착수 400,000자 정도의 디지털화 된 한자를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 98년 7월 외국기업으로는 처음으로 국가표준확장형 29,000자를 중국정부로부터 인증받았으며, 이어 02년 2월에 GB 18030을 외국 기



표준체

업으로는 처음으로 중국정부로부터 인증받은 바 있다.

서울폰트는 중국시장에서의 입지 강화를 위해 현지 법인과 파트너쉽 관계를 맺을 계획이다. 계약이 성사될 경우 외국 기업이 아닌 중국 기업이 중국시장에 진출하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중국시장에서 서울폰트의 입지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중국과 더불어 서울폰트의 진가가 발휘되고 있는 곳이 같은 한자 문화권인 일본이다.

1996년 유니코드 글꼴이 개발되어 일본 학술정보센터에 공급계약을 맺은

데 이어 2000년 일본 법무성에 호적 전산용 문자 65,000자가 공급됐다. 이어 2001년에는 일본 지방자치정보센터에 주민 기본 대장용 통일문자가 개발 공급되었으며, 2002년 9월에도 같은 용도의 서체가 개발 공급되었다.

일본 시장 진출은 올해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일본 정부가 일본 내 상주하는 외국인을 파악하기 위한 외국인등록법 적용시 사용하게 될 한자를 포함한 다국어 서체를 일본 현지 법인과 계약을 통해 공급할 전망이다.

일본 중국시장에서의 잇단 선전으로 서울폰트는 지난해 까지 해외에서만 31억원 가량의 수출 성과를 달성했다.

다국어 서체는 현지 수출용 전자제품에도 활용되고 있는데 팬택&큐리텔, 세션 텔레콤 등에서 중국시장 공략을 위해 서울폰트의 다국어 서체를 활용하고 있으며, 중국 시장 개방이 가속화될수록 중국

진출기업들의 서울폰트 활용도가 빈번해 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폰트는 기존 다국어 서체 외에 온라인 서체에 대한 개발을 강화할 전망이다. 주문형 출판 시장 공략을 연계에 둔 서비스인데 서체에 아비타의 개념을 도입할 계획이다. 즉 온라인 상에서 자신의 얼굴로 활용될 서체를 구입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양도도 가능하게 해서 PDA나 휴대폰 등에서 제작사의 폰트만이 아닌 자신이 선택한 폰트를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이용우기자 <photoyw@print.or.kr>